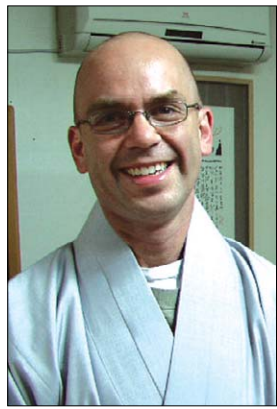


인터뷰 - '제2의 현각' 태고종 대일 스님

“미국인들에게 불법 널리 전하고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일본의 선과 티베트불교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불교가 일본과 중국, 나아가 전 세계 불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심입니다.”



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 태고종 비구스님이 된 대일 스님(속명 데이비드 주니치·38·사진)은 한국불교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대일 스님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 일원으로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자랐으나, 어렸을 적 태권도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됐다.

대일 스님은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것이 내 길은 아님을 깨달았다”며 “대학원에서도 불교와 기독교를 공부했지만 불교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2001년 한국을 찾아 인연선원, 조계사를 방문하는 등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어 오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훌륭한 스님”이라며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 부처님 법을 전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일 스님은 미국 텍사스에서 시한부 환자들을 임종

간호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바쁜 생활 속

어렸을적 태권도 배우며 자연스럽게 불교 접해 명상 지도·가족법회 진행 불법 전하기 활동

다가, 2005년 법현 스님(태고종 교류협력실장)을 계사로 ‘대일(大日)’이라는 법명과 사미계를 받고 2008년 수진 스님(선암사 율원장·담양 용화사 주지)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받았다.

대일 스님은 “한국불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서 계를 받고 직접 수행을 경험해 본 결과 한국과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은 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에서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아 ‘제2의 현각’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일 스님은 “현각 스님은 나뿐만

에서도 간한 수행에 전념하고, ‘불교와 심리학’에 초점을 맞춘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등 불교 공부에도 여념이 없다. 요가센터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말기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법회를 진행하는 등 불법을 전하기 위한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한국은 태권도, 한국전쟁 등으로 미국 문화와 역사에 큰 역할을 해 왔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텍사스에 태고종 사찰을 건립해 미국인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 싶다”는 대일 스님의 원력이 미국 전역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해외교류·경제위기 ‘화두’

각 종단 신년 주요 정책사업

각 종단이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009년 중무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태고종은 교육·문화 등을, 천태종은 조사 헌장 등을, 진각종은 전승원 활용방안 등을, 관음종은 포교·해외교류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경제위기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주기 위한 중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교육·문화·해외교류 사업 등의 저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구·사찰 단위별 평생교육제도를 정립하고, 동방불교대학 중앙승가전문강원 등을 통해 종도 자질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국토순례대장정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제’ ‘불교를 빛낸 숨은 명인 발굴’ 등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많은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해의 사업도 활발히 펼칠 전망이다. 한·중 불교문화교류협정에 따른 양국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공연 등을 통해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화현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승려·전법사 연수교육에 힘쓰고, 선·강·율원 등 수행 공간

재정비를 통한 선암사 성역화 작업에 착수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사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종단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11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일대기와 여록, 법어 집을 준비하는 등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구인사 박물관·광명당 불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진각종(총무원장 회정)은 밀교문화컨텐츠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세계 불교경서를 수집·전시하는 등 진각문화전승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전승원 내에는 국내의 불자들이 불교와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밀교수행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

새로운 포교·문화 행사 등도 개최한다. 종도들의 교화활성화와 신교도 교육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단 교회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또 폐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보존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폐사지 투어콘서트를 개최하고, 종립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불교교과서 검·인

정 출판으로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교회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포교·해외교류에 중점을 두고 중무행정을 진행한다. 4월 말 불행위원회를 구성해 내실있는 연등축제를 기획하고, ‘생전 예수재 및 수륙영산대제’ ‘군 수계법회’ 등 다양한 법회로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중포 한국불교 전통문화제(8월 예정) 인도성지순례(12월 예정) 등의 해외교류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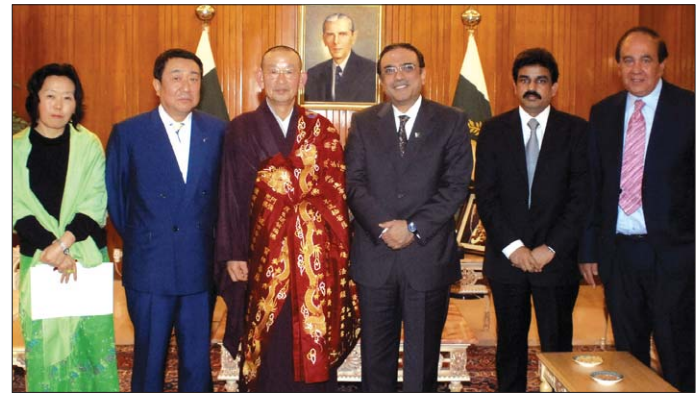
총지종(총무원장 원승)은 제3회 국제제가불자대회를 개최해 국제제가불자 네트워크 구성을 확고히 하고, 포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규집 정비, 종단의 통일 사업, 총지불교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종단법규 및 교육체계를 확립한다. 또 중앙신정회를 정비하고 각 사원 및 교구 신정회를 활성화해 포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사회소의 계층 지원을 활성화 하고 종단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는 등 사회복지활동도 증대한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간다라 유적복원 확대 받았다”

천태종 운덕 대종사 파키스탄 대통령 만나



운덕 대종사(왼쪽 세번째)는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왼쪽 네번째)을 만나 간다라 불교유적에 대해 논의했다.

무산 위기에 처했던 간다라유적 사업 등 한국과 파키스탄의 불교문화 교류에 물꼬가 트였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운덕 대종사는 구랍 15~23일 파키스탄 대통령궁을 방문, 자르다리 대통령을 만나 양국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탁살라블교대학 설립을 포함한 간다라유적 복원 등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운덕 스님은 무사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대통령궁을 방문해 간다라유적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약속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무사라프 전 대통령이 정권에서 물러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운덕 스님은 “자르다리 대통령을 만나 간다라 불교유적의 중요성을 밝히고, 복원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며 “대통령이 간다라 유적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정부가 적극 주도할 경우 한·중·일 삼국이 복원·관광·교류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조인 했다”고 설명했다.

운덕 스님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기간 중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사라프 전 대통령도 만나 협조를 재약속 받았다.

현재 이 사업은 간다라예술문화 협회장이 수도 인근 신개발 위성도시 예정지에 3만평 규모의 탁살라블교대학 복원 예정 부지를 기증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덕 스님은 “간다라 유적이 복원되면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다라 유적은 대승불교권은 물론 전 세계 불교인들의 성지인 만큼 파키스탄 정부와 불교국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혼란 수습하고 실추된 종단 위상 회복하자”

태고종 종정 친견 신년하례법회 동행



1월 25일 순천 선암사에서 동행된 태고종 종정 친견 신년하례법회.

“지난해 겪었던 혼란을 하루 빨리 수습하고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길 바란다.”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서 1월 15일 봉행된 ‘종정 친견 신년하례법회’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종도들에게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전 열반경’**에는 ‘자기 자신을 등불 삼

고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진리를 등불 삼고 법에 의지할 것이지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온다”며 “이 설법만 기스에 새겨 잘 실천한다면 분명 새해에는 정토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종단의 화두는 종단 안정과 종도화합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을 비우고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야심경 봉독 △축원 △종정·원로스님 신년하례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총무원장 운산스님, 승정원장 남파스님, 사정원장 월운스님, 중앙종회의장 인공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김진성 기자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초대종정 정관 스님 취임



1월 15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봉행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취임법회.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1월 15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초대종정 정관 스님 취임 및 국가와 민족 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서 종정

으로 추대된 정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발전과 화합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그동안 종단발전에 힘써 온 종단임원 및 신도의 감사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빙의·퇴마·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수요일반 개강 : 1월 21일, 28일 오후 1시 ·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 사항

-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 2. 6주 24시간의 최면 집중 현장 교육
- 3.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교육 훈련비
-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책임 교육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9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송이 지면으로 나와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은 유마최면 연구소라는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송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예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 수련기간 : 20회, 인원 10명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때, 쉼을 넘나 드십시오!

초판인쇄 한정수량판매!! 100분개 명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365일 매일 한 장씩!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 특수 조사법 공개!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날렸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붙어 왔는지 돌아오는 순간 알 수 있는

귀신뽑는 래정비법! 특수 조사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숭아지 않고 전원이 할 수 있는 래정비법! 미안한 일로 인해 죽어 갈 수 있게 조사를 확인하게 합니다! 신권/원정판/56쪽/정가 120,000원 ** 귀재책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입금계좌(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H.P : 010-3813-4443 신한 010-3813-4443